

‘다실의 미학과 다실 주변 정원의 디자인’

은거처 만들기: 다실과 로지(다실의 정원)

와비차: 검소라는 이름의 미학

16세기 일본의 유력인사들은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이나 동맹 결성을 위해서 다실이라는 좁고 소박한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권세를 누리던 남자들이 나지막한 문간을 지나 숲속에 있는 은자의 소박한 오두막 같은 방에서 작은 이로리(일본의 전통적인 난방장치)에 둘러앉았습니다. 이 강력한 지도자들이 ‘와비차’라고 하는 다도의 미학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16세기까지 차를 마시는 의식은 주로 승려나 귀족, 상급무사들이 하던 것이었습니다. 다회(茶會, 차모임)는 상류층 저택의 호화로운 응접실이나 절당에서 열렸으며, 다기는 중국에서 수입된 섬세한 장식이 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와비차는 소박한 소재와 최소한의 장식에 의한 절제된 장인기술로, 간소하고 세련된 것을 중시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승려 무라타 주코(村田珠光, 1423-1502)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의 사상을 오사카의 호상이었던 다케노 조오(武野紹鷗, 1502-1555)가 도입했고, 그 제자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다인 중 한 사람인 센리큐(千利休, 1522-1591)가 계승했습니다. 와비차는 리큐의 힘있는 무사들의 지원 아래 무사계급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다도에서 주류를 이루는 미학이 되었습니다.

다실: 리큐의 이상

리큐를 비롯한 다인들은 다실은 산에 있는 오두막 같은 분위기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실 이름의 대부분에는 ‘정양소’나 ‘은신처’ 등을 뜻하는 ‘암(庵)’자가 접미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야마자토’라고 하는 설계개념을 좋아하는 리큐는 소박한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다실을 둘러싸듯 다정(다실에 딸린 정원)을 두고, 둘을 하나의 콘셉트 공간으로 융합시켰습니다.

리큐가 이상으로 한 다실은 아담하고 독립된 암자였습니다. 손님들은 작고 네모난 니지리구치로 기듯이 하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실 안은 천정이 낮고, 가구도 없으며 장식도 소박했습니다. 건물 전체는 거의 가공을 하지 않은 자연소재로 만들어졌고, 지붕은 조출한 초가였습니다.

정원 또한 리큐 미학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별채 다실에는 징검돌을 깔 오솔길이 있는 작은 정원 '로지'가 있어야 한다고 리큐는 생각했습니다. 다회는 정식으로 가이세키 요리가 나온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다회가 시작되기 전에 손님들은 정원 바깥 '마치아이'라고 불리는 지붕이 있는 대기공간에 모였습니다. 주인의 준비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징소리 또는 다른 신호로) 손님들은 로지를 따라 다실로 향했습니다. 이 로지는 일반적으로 멈춰 서서 손을 씻기 위한

쓰쿠바이앞으로 나 있었습니다.

우라쿠의 다실

리큐의 제자였던 우라쿠는 리큐가 좋아했던 와비차나 작은 별채 다실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한편으로 우라쿠의 다실에는 무사의 다도로 통하는 호화로움도 남아 있습니다. 조안과 겐안은 리큐의 다실들보다 클 뿐만 아니라 지붕은 초가가 아닌 널빤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다실 도코노마(일본식 방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의 가장자리에 검은 옷칠을 하여 리큐가 보았다면 너무 화려하다고 했을 법한 내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안의 로지

징검돌, 쓰쿠바이, 우물, 석등 등 로지의 실질적인 부자재는 1908년 조안과 함께 미쓰이 가문에 매각되었습니다. 건축가 호리구치 스테미(堀口捨己)는 1799년에 그려진 쇼텐인(正伝院, 정전원)의 그림을 토대로 각 요소의 배치를 복원했습니다. 또 호리구치는 그림에 그려져 있는 수목에 맞춰 흑송과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남서쪽 구석에 있는 원형의 우물은 와비차의 시조인 무라타 주코(村田珠光)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우라쿠는 주코를 매우 존경했으며, 주코의 원래 우물 수복을 도운 우라쿠는 그 후에 자신의 정원에도 유사한 것을 만들어 '겐나 원년(1615) 9월 2일, 우라쿠'라고 새겼습니다.

조안의 로지에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부산해(釜山海)'라고 이름 붙여진 쓰쿠바이(다실 입구에 설치한 손 씻는 물그릇)입니다. 이 이름은 돌의 산지가 부산의 해안이라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사가 조선에 출병했을 때, 이 희귀한 돌이 일본으로 반출되어 히데요시에게 헌상되었고, 그 후 히데요시가 우라쿠에게 보냈습니다. 이 돌의 중앙 움푹 패인 곳은 파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인데, 이는 와비차 미학에서 이상적인 쓰쿠바이입니다.

겐안의 로지

겐안의 로지는 에도시대(1603-1867) 중기에 그려진 그림을 토대로 복원된 것입니다. 다실 남쪽에 지붕이 있는 마치아이(待合)가 있고, 거기에서 징검돌을 건너가면 정육면체의 작은 쓰쿠바이가 있습니다. 그림에 의하면 원래는 쓰쿠바이 양쪽에 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유형은 '사방불 수수발(四方佛手水鉢)'이라고 하며, 분해된 석탑의 기초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호리구치는 겐안에 적합한 이런 종류의 쓰쿠바이를 찾을 수 없어서 심플한 입체형을 선택했습니다. 또 호리구치는 우라쿠가 있던 시대와 유사하게 작은 참나무와 남천축으로 쓰쿠바이를 둘러쌌습니다.

주의: 정원 일부에는 검은 끈을 묶은 돌로 통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메이시'라고 해서 그 앞쪽은 출입금지임을 나타냅니다.